현대소설연구 (제66호)
The Journal of Korean Fiction Research
http://dx.doi.org/10.16894/JKFR.66.1.16

리원길 소설에 나타난 개혁개방

최 병 우*

요 약

본고는 리원길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인 개혁개방기 농촌 개혁을 작가의 생애와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살펴보았다. 리원길은 문혁 이후 개혁개방이 시작한 시기에 등단하여 당시 문단의 주류였던 문혁의 상처를 다루고 농촌 개혁의 현실을 소설화하였다. 리원길의 작품 경향은 계급투쟁에서 개혁개방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소설 창작을 시작한 그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정신의 결과라 하겠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 사회가 지향하던 농촌 개혁과 관련한 주제를 소설화하여 조선족 문단을 대표하는 작가로 자리한 리원길은 개혁개방이 본격화되던 1990년대 중반부터 점차 창작으로부터 멀어진다.

리원길이 소설 창작에서 멀어진 것은 그가 통일된 이념이 사회를 지배하던 시기에 성장하고 등단하여 국가가 지향하는 시대적 주제를 소설화함으로써 단기간에 문단의 주목을 받은 점과 연관된다. 일정한 시대적 주제를 통일된 시각으로 작품화하는 세대를 대표하는 작가인 리원길로서는 독특한 현실 인식으로 새로운 창작 방법을 모색할 것을 요구하는 문학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리원길이 새로운 시대를 담보할 독자적인 창작 방법을 구안하지 못하여 더 이상 소설을 창작하지 않겠다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주제어: 조선족 소설, 개혁개방, 농촌 개혁, 집단영농, 호별영농, 시대적 주제

* 강릉원주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목차

1. 서론
2. 하방 체험의 소설화와 문혁 비판
3. 농촌 개혁에 관한 시각의 전환
4. 농촌 개혁 과정의 치밀한 형상화
5. 시대적 주제의 소설화가 갖는 한계

1. 서론

리원길은 1979년 등단하여 20년 정도 작가 생활을 통하여 장편소설 2편, 중편소설 25편, 단편소설 31편 등 다수의 작품을 발표하여 전국소수민족문학상, 장백산문학상을 비롯한 많은 문학상을 수상[1]한 조선족 문단의 대표적 작가 중 하나이다. 문혁이 끝나고 몇 년이 지난 1979년에 대학원 입시가 부활되자 리원길은 매하구 11중 부교감을 그만두고 중앙민족대학에 입학하여 언어학 연구생으로 수학하면서 소설 창작을 시작하였다. 이후 1980년 5월 『아리랑』지에 〈배움의 길〉을, 10월 『연변문예』지에 〈백성의 마음〉을 발표하여 조선족 문단에 주목을 받는 작가로 등장한다. 1982년 중앙민족대학 연구생을 마치고, 1983년 5월 북경대학에서 문학석사학위를 취득[2]

1) 오상순, 「'선비'와 '농민작가' - 이원길론」, 『오늘의 문예비평』 2007.2, 165~167면. 이 글 1장에 리원길의 생애가 정리되어 있어 본고에서는 작가의 생애는 이 글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리원길과의 대담을 정리한 강옥, 「소설가의 진담」(『천지』 1993.8. ; 리원길, 『땅의 자식들 1』, 뜻이 있는 길, 1994. 재수록)을 참조한다.

2) 당시는 문혁 직후로 연구생 제도를 건립 중이었는데 중앙민족대학 조선어문학부는 석사학위수여권이 없었다. 따라서 석사과정을 수료했지만 학위를 수여받지 못한 학생들은 북경대학에서 졸업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심사를 받아 북경대학의 석사학위를 취득해야 했다. 리원길의 메일(2017.5.25.) 참조. 이하 '리원길 메일'로 약한다.

한 리원길은 중앙민족대학에서 교원 생활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농촌 호구인 리원길은 가족들이 북경 호구를 얻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다가 1985년 연변자치주정부의 특수인재초청조치에 응하여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 겸 전직작가로 자리를 옮긴다. 이후 10년간 연변인민출판사 부총편집 겸 연변작가협회 부주석 등으로 재직하면서 왕성한 작품 활동을 통해 중견 조선족 작가로서의 위치를 굳혔다. 그러나 1995년 국가민족사무위원회와 중앙민족대학교의 귀교 지시에 응하여 중앙민족대학 교수로 이직[3]하면서 점차 소설 창작으로부터 멀어진다.[4]

작가로서의 명성만큼 리원길 소설에 대한 평가는 조선족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된 바 있다. 그의 작품이 문학상을 받을 때 여러 편의 비평문이 쓰여졌고, 그의 소설집에 실린 해설[5]이나 연구자들의 비평문도 적지 않다. 리원길의 소설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개혁개방기의 소설문학의 변화 과정에서 리원길의 〈설야〉가 조선족 소설이 가진 근엄성을 벗어나 세속화한 점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6] 그리고 조선족 소설의 변화과정에서 리원길의 장편소설 〈설야〉가 갖는 위치를 검토한 평문[7]과 〈설야〉의 주제적 · 기법적 특징

3) 리원길이 북경에서 연변으로 또 연길에서 북경으로 이주하는 과정은 리원길 메일 참조.
4) 1996년 장편역사소설 〈봉황새 난다〉를 1999년 속편 〈떨어지는 봉황새〉와 단편소설 〈변색인간〉을 발표하고, 2000년 중편소설 〈직녀야, 니나 내려다고!〉로 2001년 도라지문학상을 수상했으나 리원길의 작가로서의 삶은 1995년 북경으로의 이주와 함께 사실상 끝난 것이라 하겠다.
5) 중편소설집 ≪피모라이 병졸들≫에 실린 정판룡의 「머리말을 대신하여」가 그 좋은 예이다. 이 글은 리원길, ≪땅의 자식들 1≫(뜻이 있는 길, 1994.)에 「리원길의 중편소설에 대하여」란 제명으로 재수록되었다.
6) 그 대표적인 성과로 아래의 글들이 있다.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이해영, 『중국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7) 그 대표적인 성과는 아래와 같다.

을 다룬 평문[8]이 있고, 리원길의 작품 전반의 의미를 검토한 평문으로는 오상순의 「'선비'와 '농민작가'-리원길론」[9]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개혁개방으로 대외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중국문단의 한 경향으로 자리 잡았던 '뿌리 찾기 문학(尋根文學)'이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양상을 허련순의 〈바람꽃〉과 리원길의 〈설야〉, 최홍일의 〈눈물 젖은 두만강〉 등을 통해 살핀 오상순[10]과 개혁개방기의 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농민'의 형상과 정체성을 고구하면서 리원길의 〈리향〉을 다룬 차성연[11]의 논문 등은 리원길 소설의 한 측면을 밝히는 단서를 마련해 준다.

본고는 개혁개방기 소설 연구의 대상 중 하나로 다루거나, 〈설야〉에 치우치거나, 작품에 대한 해설 수준을 넘지 못하는 그간의 연구 경향을 반성하여, 리원길 소설 전반을 관통하는 주제를 작가의 생애와 시대 상황과 관련지어 살피고자 한다. 리원길은 1978년 12월 제11기 3중전회에서 문혁 시기 좌적 편향의 오류가 남긴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중국이 나아갈 방향을 개혁개방으로 결정한 시기에 소설

조일남, 「〈설야〉가 말해주는 것」, 리원길, ≪땅의 자식들 1≫, 뜻이 있는 길, 1994. 재수록.
장춘식, 「리원길의 장편소설 〈땅의 자식들〉 시론」, 『도라지』 2004.5.

8) 윤해연, 「〈설야〉의 예술적 특색에 대하여」와 태휘, 「리원길의 장편소설 〈설야〉의 언어구사에 대하여」 등. 이 두 글은 리원길, ≪땅의 자식들 1≫(뜻이 있는 길, 1994.) 재수록되었다..

9) 오상순은 같은 제목으로 『도라지』(2004.5.)와 『오늘의 문예비평』(2007.2.)에 발표하였다. 그러나 두 글은 중국과 한국의 독자들을 상대로 한 글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발표된 『도라지』본이 중국문학과의 관련이 상세하게 기술된 데 비해 『문예비평』본은 한국 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상당 부분 축약이 되어 있고, 작품에 대한 해설이나 평가도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또 작가의 생애는 리원길을 잘 알지 못하는 한국 독자를 대상으로 한 『문예비평』본에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10) 오상순, 「조선족 여성작가 허련순의 소설과 당대 남성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뿌리 찾기 의식' 연구」, 『여성문학연구』 12, 2004.12.

11) 차성연, 「개혁개방기 중국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농민'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0, 2012.8.

창작을 시작하였다. 따라서 리원길은 당시 중국 문단의 주류를 이루던 문혁의 상처를 이야기하고 문혁 시기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드러낸 소설과 함께 개혁개방의 경과와 그로 인해 대두할 미래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는 작품을 주로 창작하였다. 이러한 리원길의 작품 경향은 계급투쟁에서 개혁개방으로 급변하는 시기에 소설 창작을 시작한 그가 가질 수밖에 없는 시대정신의 결과라 하겠다.[12)]

이러한 시대 상황 속에 등단한 리원길은 15년 남짓한 시간 동안 소설집 ≪백성의 마음≫(연변인민출판사, 1984)과 장편소설 〈땅의 자식들〉의 1, 2부에 해당하는 ≪설야≫(연변인민출판사, 1989)와 ≪춘정≫(연변인민출판사, 1992) 그리고 중편소설집 ≪피모라이 병졸들≫(민족출판사, 1995) 등을 간행하였다. 이러한 작품들을 통해 조선족 문단의 대표 작가 중 하나로 추앙받던 리원길은 1995년 중앙민족대학의 교수가 되어 북경으로 이주한 후 작가로서의 생활을 거의 마감한다. 본고는 이 점에 착안하여 그의 작품에 변혁기 중국 현실이 어떻게 그려져 있는지를 살펴 그의 소설이 지향한 세계를 해명하고, 그의 소설이 지닌 의의와 한계를 밝히고자 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족 문단의 대표적 작가였던 리원길이 소설 창작을 포기하기에 이른 내면 풍경도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방 체험의 소설화와 문혁 비판

리원길은 대학을 졸업하고 줄곧 자기의 고향인 매하구에서 교원

12) 천쓰허는 90년대로 갈수록 중국문학은 계몽 담론이 해체되고 사적이고 일상적인 서사를 보여주는 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는데 이를 통일된 시대적 주제를 다루던 공명(公名)의 시기에서 하나의 문학사조가 시대적 주제의 일부만을 반영할 뿐인 무명(無名)의 시기로의 전환이라 정리한 바 있다. 천쓰허(陳思和), 노정은 · 박난영 역, 『중국당대문학사』, 문학동네, 2008, 25~26면.

사업을 하였다. 대학 시절 문학에 대한 열망을 지니고 창작 능력을 보여준 바 있는 리원길이었지만 문혁 시기 객관적인 정세가 창작의 자유를 마련해 주지 않았던 것이다. 1979년 매하구 11중 부교감으로 재직하던 리원길은 처가가 있는 석현으로 가는 길에 연변인민출판사 편집부에 근무하던 대학 친구 김봉웅을 만나 문혁으로 허송한 청춘에 대한 아쉬움을 나누다가 편집실의 문학적 분위기에 취해 소설 창작에 대한 강렬한 충동을 느꼈다. 리원길은 창작열에 사로잡혀 처가에 가서 문혁 직후 문단의 주류를 이루었던 상처문학의 경향을 반영해 〈다시 찾은 청춘〉을 집필하였다.[13]

이 작품은 문혁이 시작되기 직전의 사회 분위기에서부터 문혁 초기의 연변 지역을 극심한 혼란으로 몰고 간 소위 홍색파[14]와 보황파의 갈등과 무력 충돌, 홍색파의 우파 분자에 대한 비판 대회와 반대파에 대한 폭력적인 탄압, 그리고 사상개조를 이유로 하방된 지식인들이 문혁 이후 귀향하기까지 문혁의 전 과정을 담고 있다. 졸업을 앞두고 문혁을 맞아 비판당하고 북대황으로 하방되었던 리원길은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문혁 시기의 극좌적 정치 상황에 의해 훼손된 인간의 존엄을 보여주고, 작품 말미에서는 문혁 이후의 희망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15]

작품의 주된 스토리 라인은 작가 자신의 형상인 일인칭 서술자 광휘와 그가 존경하는 강인구 교수 그리고 그의 친구 송삼이라는 세

13) 강옥, 앞의 글, 396면. 〈다시 찾은 청춘〉의 말미에는 이 작품을 1979년 1월 15일 석현에서 썼음이 밝혀져 있다. 리원길, 〈다시 찾은 청춘〉, 남주길 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연변인민출판사, 1980, 101면. 강옥의 대담 내용과 이 기록으로 미루어 보면 이 작품은 열흘 남짓한 기간에 집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하 작품집에 수록된 작품의 인용은 '〈작품명〉, ≪작품집명≫, 면수'로 한다.

14) 이 작품에서는 '폭발전투대'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

15) 이 작품의 원제목은 〈빼앗긴 청춘〉이었으나 새로운 출발의 의미로 제목을 고치고 결말 부분도 희망을 제시했다고 한다. 오상순, 「'선비'와 '농민작가' - 이원길론」, 『오늘의 문예비평』 2007.2, 168면.

인물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문혁 직전 강인구 선생을 찾아뵌 자리에서 광휘는 강인구 교수의 뜻에 따라 전통문화를 옹호하는 견해를 보이는데 비해 송삼은 옛것을 쓸어버리는 것만이 시대정신에 맞는다는 주장을 하여 이후 갈등의 복선이 제시된다. 이 자리에서 강인구 교수는 요문원의 「해서의 파직」이라는 글이 정치 풍파를 일으킬 것 같다고 말해 문혁을 예고한다.[16] 강 교수의 우려대로 정치적 폭풍이 시작되자 송삼은 급진적 반란 조직인 폭발전투대의 핵심인물로 자리하여 강 교수를 비판하고 사상개조로 내모는데 앞장서고, 강 교수를 옹호하는 광휘를 자신의 세력에 끌어들이려다 실패하자 학습반에 보내버린다.

공회대청소각사건을 마무리한 송삼은 권력을 장악하고, 광휘는 당원 자격을 박탈당해 북대황으로 하방되고, 강 교수는 교수직에서 쫓겨나 백두산 근처 오지로 쫓겨난다. 이후 7년 동안 백두산 지역의 조선족 문화를 조사하던 강 교수는 사망하고,[17] 문혁이 종결되자 송삼은 준엄한 심판을 받고, 광휘는 복권되어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고향으로 돌아온다. 이렇듯 이 작품은 문혁이라는 극좌적 시류에 편승한 자들에 의해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 훼손당한 현실에 대한 준엄한 비판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시 찾은 청춘〉은 문혁의 상처를 소설화하면서 문혁 발발 직전부터 종료 이후까지 10년이 넘는 시간을 짧은 분량에 담아내어 소설적 긴장감이 떨어진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문혁에 대해 극좌적 시류에 편승한 비열한 인간에 의해 수많은 선량한 인물들이 핍박을 받는 것으로 그려 문혁의 상처가 갖는 역사적 의미의 한 편린만 보여주었다는 한계를 보인다.[18]

---

16) 요문원의 「해서의 파직」은 문혁을 촉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지적은 문혁 이후 요문원의 글을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 있다.

17) 강인구 교수 형상의 원형은 문혁 때 비참하게 삶을 마감한 현남극 선생이라는 지적이 있다. 오상순, 앞의 글, 162면.

18) 이러한 한계는 상처문학이 보여준 일반적 성향으로 문혁이라는 엄청난 역사적

이 작품에서는 작가 자신의 북대황 하방 체험을 사상개조를 위해 추운 북방으로 가게 되었다는 정도로만 서술되어 있으나 하방의 의의에 대한 분명한 비판적 시각을 보여준다.

>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왕평이 천안문사건 기간에 북경에 다녀온 연고로 왕평이는 물론이고 왕평의 집으로 드나드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요시찰인물이 되였다. 그래 그자들은 우정 왕평을 놔두고 그 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부터 하나하나 체포하고 있던 중이었던 것이다. 열흘 후에 감방문이 열리며 왕평도 떠밀려 들어왔다. 그의 옷은 갈기갈기 찢어지고 입귀에선 피가 흘렀다.
>
> "밀지 말아, 진리를 위해선 염라전도 꺼리지 않는 내다!"
>
> 왕평이 부르짖었다. 이것이 북대황에서 '개조'되였다는 왕평이였다. 나는 달려가서 전우 왕평을 으스러지게 껴안았다.[19]

강인구 교수의 부음을 듣고 빈소로 가던 광휘는 치치하얼에서 북대황에서 함께 노동단련을 받다 평심을 받고 복직한 왕평을 만나러 갔다가 기다리던 공안들에게 붙들려 수감되고 얼마 후 왕평도 감옥에 들어온다. 이 작품에서 작가 자신의 하방 체험인 북대황과 관련한 내용이 등장한 부분은 치치하얼에서 왕평과 만나는 장면뿐이다. 이 부분에서는 북대황에서 노동 체험을 통해 사상을 개조하려는 본래의 목적과 달리 정신의 개조가 일어나지 않거나 오히려 저항 정신만 형성되는 결과를 낳았다는 비판적 인식을 보여준다.

리원길은 1968년 11월부터 1970년 4월까지 1년 반 동안, 중국 역사상 최대의 황지 개발 사업이라 평가되는 북대황 개발이 한창이

시련을 겪은 직후 문혁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마련하는 것이 불가능했던 현실적 한계이다.

19) 〈다시 찾은 청춘〉, ≪사랑에 대한 이야기≫, 96면.
이하 모든 작품의 본문 인용은 원문대로 하되 가독성을 위해 띄어쓰기는 '한글맞춤법규정'에 따른다.

던 흑룡강성 북쪽 흑하 지구에 자리한 중국인민해방군 3108부대 농장에서 노동 단련을 받았다. 북대황은 세계 3대 흑토지역의 하나로 토질도 비옥하고 수리 자원도 풍부하나 엄혹한 자연환경 때문에 역사 이래로 황무지로 남아 있었다. 북대황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하고 개간에 눈을 돌린 것은 1955년 왕진 장군이 중공당중앙과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북대황을 개발하는 문제에 관하여」라는 보고에 의해서였고, 이후 3년간의 준비를 거쳐 개발이 본격화되었다.[20] 1958년을 전후하여 14만 명의 퇴역군인과 10만 명의 지식인 그리고 20만 명에 달하는 지역 청년들이 당중앙, 국무원 그리고 중앙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북대황에 모여들어 황지의 개간과 농사를 개시하였다. 그리고 1968년도에 들어 전국 각지의 50만 명에 달하는 지식청년과 인민해방군이 모여들어 진정한 개간이 진행[21]되어 북대황은 중국의 대표적 곡창 지역의 하나인 북대창으로 변모했다.

1968년도에 50만 명에 달하는 지식청년들이 북대황 개발에 몰려든 것은 문혁 초기의 혼란이 어느 정도 수습되고 지식청년에 대한 하방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많은 대학생들을 북대황으로 내몰았기 때문이다. 북대황으로 하방된 대학생들은 군인들의 지도 아래 황지에 불을 놓고 나무 등걸을 제거한 뒤 토지를 정리하여 파종하고 수확하기까지 힘든 노동에 내몰렸다. 학교에서 공부만 하느라 육체노동 경험이 거의 없는 대학생들은 견디기 힘든 노동과 불편하기 그지없는 숙식 환경 그리고 여름의 벌레와 겨울의 강추위에 엄청난 고통을 체험하였다. 리원길은 북대황에서의 경험을 중편소설 〈피모라이 병졸들〉에서 소설화하여 노동을 통한 사상 개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비판한다.

---

20) 董永祥 · 杨艳秋, 「北大荒文艺产生发展的历史性考察」, 『牧丹江师范学院学报』 2013.6, 42면.

21) 滕紫欣 · 张冬, 「北大荒文学及历史意意研究」, 『牧丹江大学学报』 23-11, 2014. 11, 95면.

> 자기네들의 부반장인 남철용님께서 로동계급으로 자처하는 괴한에게 '인민의 죄수'로 '정배군'으로 욕을 먹고 매까지 늘어지게 맞았다니 이거야말로 청천벽력이 아닐 수 없었다. 북대황에 와서 고생은 하면서도 시초 그들은 자기들을 북대황의 건설자로, 혁명의 실천파로 생각하여 그 당시 가지기 힘든 긍지감까지 가졌댔는데 그것이 비록 점차 담박해지는 지금일지라도 '정배군'이라는 말을 듣고는 가만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잠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 모두들 머리를 숙이고 거친 숨만 내쉬고 있었다.[22]

북대황에서 숲에 불을 지르고 파종을 하고 폭우로 늪이 된 밭에서 수확을 하는 가혹한 노동 속에서도 자긍심을 잃지 않고 살아가던 대학생들은 지방 공사판을 다니는 자동차를 얻어 타려다가 봉변을 당한다. 이 사건으로 북대황 개척단에 참가하여 몸은 괴롭지만 국가를 위하여 봉사한다는 사명감에 불타던 대학생들은 인민들이 자신들을 사상 개조를 위해 정배된 존재로밖에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대학생으로 사회의 존중을 받으며 생활하다가 낯설고 거친 북대황까지 와서 헌신하는 자신들에 대한 인민의 인식이 이러하다는 것은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대학생들의 항의에 따라 군인들의 명령으로 노동자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지만 자신들이 정배를 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한 것은 그들의 생활에 커다란 변곡점이 된다.

북대황 개발은 황지를 농지로 바꾸어 곡물 생산량을 늘린다는 목적과 함께 소련과의 긴장 관계에 대비하여 황지를 없애고 전략적 기지를 만든다는 국가적 목적이 없지 않았다. 왕진 장군이 제안하고 군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관여하며 퇴역군인과 현역군인이 개발에 나서고 점차 지식청년들을 참여시킨 것은 그 정황을 짐작하게 한다.

22) 〈피모라이 병졸들〉, ≪피모라이 병졸들≫, 38~39면.

특히 1968년에 졸업을 앞둔 수많은 대학생을 북대황 개발에 투입한 것은 대학생활에서 배운 수정주의적 사상을 개조하고 문혁 초기에 홍위병으로 제멋대로 반란하고 다니던 자유주의적 습성을 노동을 통해 개조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23]는 지적이 가능하다. 대학생들은 졸업을 앞두고 북대황에서 1~2년간의 노동을 통해 투철한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그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했다.

> 피모라이 패장은 80리 밖인 룡진 역전까지 나와, 말썽 많던 자기의 병졸들을 전송하고 나서 무거운 심정으로 트럭에 앉았다.
> 피모라이 부대는 '피모신(皮毛新)' 부대가 못 되었다.
> '가죽'도 새롭게 갈지 못하고 '털'도 새 털로 갈지 못하였다.
> '가죽'이 나빠서인가?
> 피모라이는 승인할 수 없었다.
> 그러면 '털'이 나빠서인가?
> 피모라이 생각엔 '털'도 그만하면 된다고 생각하였다.
> 그렇다면 무엇 때문일가?
> 피모라이는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 흐려오는 날씨였다. 때 아닌 진눈까비가 흩날린다.
> 이곳은 기후가 문제였다.[24]

주인공 설봉이 속한 부대의 패장인 피모라이(皮毛癩)는 만기가 된 부대원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고 난 뒤, 그들의 개조는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이름처럼 가죽(皮)과 털(毛)이 비루먹은(癩) 대학생들이 북대황까지 와서 가죽과 털이 새롭게 되지 못하고 돌아간 것은 방법의 탓도 대학생들의 인성 탓도 아니라는 인식

23) 정판룡, 「머리말을 대신하여」, ≪피모라이 병졸들≫, 9면.
24) 〈피모라이 병졸들〉, ≪피모라이 병졸들≫, 172~173면.

에 도달한다. 사상 개조가 이루어지지 못해 수정주의와 자유주의가 그대로 지속되고, 오히려 〈다시 찾은 청춘〉의 왕평처럼 반체제 쪽으로 전환한다면 수많은 대학생들을 북대황에서 군인들의 지휘 아래 노동 단련하게 한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시각에서 〈피모라이 병졸들〉은 적지 않은 학생들이 사고로 죽고, 정신이 황폐해져 폐인이 되는 상황으로 내몬 국가적 폭력에 대해 어떠한 평가를 내려야 할 것인가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25] 바로 이 점이 이 작품이 조선족 소설사에서 갖는 반성문학으로서의 의의라 하겠다.

3. 농촌 개혁에 관한 시각의 전환

리원길은 1970년 북대황에서 돌아와 대학을 졸업하고, 고향으로 돌아와 해룡현 제9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결혼도 하였다. 학교는 해룡진에 있었으나 집은 학교에서 5리 이상 떨어진 농촌 마을 신승촌에 자리 잡았고, 이곳은 연길로 전근할 때까지 리원길 가족의 가난한 생활의 터전이었다. 그는 교사생활을 하면서 또 북경에서 생활하다 고향에 들를 때마다 늘 농민들과 스스럼없이 지내면서 농민의 삶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려 애를 썼다. 이러한 농민에 대한 관심은 그가 지식인으로 도시에 거주하며 창작하였음에도 농민으로 평생을 보내며 농민의 삶을 소설화한 윤림호, 박선석 등과 함께 대표적인 조선족 농민작가로 평가받는 밑거름이 된다.

리원길 소설의 대부분은 개혁개방을 전후한 시기의 농촌 현실을 다루고 있다. 극좌적 정책으로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지시가 하달되

25) 이런 점에서 오상순은 리원길이 북대황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인간과 사회에 대한 진지한 사색을 거듭하였고, 그 결과물이 〈피모라이 병졸들〉이라 해명한다. 오상순, 앞의 글, 163면.

어 농촌이 피폐해진 가운데 보다 나은 삶을 위하여 또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 노력하는 기층 간부들의 헌신과 그들과 함께 하는 인민들의 분투를 보여준다. 이러한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품으로 리원길의 작가적 명성을 확보해준 〈백성의 마음〉이 있다.

이 작품에서 정부의 지시대로 과도한 식량을 공출하여 식량부족으로 시달리던 마을사람들은 모판을 만들고 남은 종곡을 생산대장 종수의 집에 옮겨 놓은 것을 알고는 그것을 나누어 당장의 기아를 면하자고 요구한다. 종수도 대원들의 기아를 해결하기 위해 생산대 공동 소유인 종곡을 나누려 하지만, 전임 간부였던 석구 영감의 호통에 마을사람 전부가 물러서고 만다. 비상시에 대비해 남겨둔 종곡을 먹어버리면 모내기 전에 천기가 불순해져 모판을 못 쓰게 되면 마을 사람 모두가 굶어 죽을 수밖에 없기에 종곡을 보관해야 한다는 석구 영감의 주장을 부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모내기를 제대로 끝낸 후 생산대장 집에 보관하고 있던 종곡을 골고루 나누어 기아를 극복한다.

> "우리의 백성은 좋다!"
>
> 아니 이건 누가 말했던가? 아무튼, 아무튼 누가 말했든 간에 우리의 백성은 좋다. 이런 백성이 있기에 우리나라는 어려운 고개를 넘어오고 있지 않는가! 우리 당의 과오를 량해할 줄 알고 제 나라의 곤난을 헤아릴 줄 아는,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일하고 싸워나가는 이런 인민을 위해서 당원이며 간부인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종수는 심각한 얼굴로 걸어가고 있다. 우리 당의 일군들은 모든 일을 이런 인민들 앞에 책임져야 할 것 아닌가? 그것은 주관적이고 선의적인 욕망만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백성의 마음을 진정으로 알 때만이, 그리고 그 마음을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때만이 우리는 그들 앞에 죄를 지지 않을 수 있다.[26]

26) 〈백성의 마음〉, ≪백성의 마음≫, 118면.

종곡을 마을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생산대장 종수가 감회에 젖어 생각하는 장면이다. 집단영농으로 전환한 후 생산대장의 지시 아래 마을이 운영되는 상황에서 그의 책임은 막중하다. 잘못된 정책으로 흉년에도 너무 많은 곡식을 공출하여 마을이 파탄에 이르렀지만 인민들의 합심과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안도와, 이러한 인민의 마음을 받아들여 마을 사람들에게 보다 나은 삶을 마련해 주기 위해 기층 간부인 자신들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인민들의 마음 깊이 자리하고 있는 희생정신과 성실함에 대한 믿음과 그들과 함께 눈앞에 닥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헌신하는 기층 간부의 모습을 담은 이 작품은 대약진 운동 이후 극좌적 정책에 의해 황폐해져가는 농촌 모습과 열악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헌신하는 농민들과 기층 간부의 모습을 그려 당시 조선족 문단의 주목을 끌었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농촌을 황폐하게 한 정책에 대한 반성이 없이 주어진 조건 하에서 생존을 위해 분투하는 농민들과 기층 간부의 형상만을 드러낸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대약진 운동 이후 집단영농 정책으로 인민공사가 설립되면서 생산성의 저하로 중국의 농촌은 황폐화된다. 생산대 단위로 집단 노동과 집단 급식을 하고, 심경이나 밀식 같은 비현실적인 농법을 강요하여 해가 갈수록 농업 생산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기층에서는 대풍이라는 허위 보고를 올려 상급에서 생산량에 비해 과도한 공출을 실시함으로써 농촌이 파탄 지경으로 내몰린 것이다. 리원길의 〈백성의 마음〉은 농민을 기아로 내몰리게 한 정책의 문제는 외면하고, 그 결과 주어진 위기를 극복하는 인민과 기층 간부의 헌신만을 강조한 점에서 명백한 한계를 보인다. 더욱이 작품의 제목을 〈백성의 마음〉이라 하고 작품 내에서도 앞의 인용에서 보듯 백성과 인민을 구분 없이 사용한다. 이는 작가가 농촌의 위기를 탄생시킨 원인과 인민의 주체성에 대한 성

찰이 부족하여 인민을 당과 간부에 의해 영도되는 수동적 존재로 인식하는 한계를 드러낸 것이다. 이 작품에 드러난 리원길의 현실인식은 정부의 농업 정책을 보여준다는 당시 문단의 주류적 경향에 충실히 따른 결과라 하겠다.

리원길의 소설은 〈백성의 마음〉이 보여준 바와 같이 중국 정부가 지향하던 정책의 정당성을 드러내는데 치중하였다. 리원길은 1978년 12월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공산당의 중점 업무를 '경제건설'로 단일화하여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시작[27]한 1979년에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작가 생활을 시작하였다. 개혁을 화두로 하는 시기에 창작 활동을 시작한 리원길은 농촌 개혁 정책으로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가는 농촌의 모습을 소설화하여 개혁 정책의 긍정적 면모를 강조한다.

〈두루미 며느리〉(1983)는 억세고 키 큰 며느리를 얻었다가 문혁기간 중에 당의 정책을 신봉하는 며느리에게 비판받았지만 호별영농[28]이 시작된 후 부지런한 며느리 덕에 남보다 먼저 부를 획득한 정영감의 며느리 자랑을 통하여 극좌적 정책을 시행하던 문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개혁개방 이후의 사회 현실을 예찬한다. 〈약혼 전 어느 하루〉(1983)는 새로운 정책으로 호별영농으로 나가기 위해 땅과 농기구들을 나눌 때, 농삿일을 잘 모르던 남철이가 땅과 소를 할당받지만 자기의 재산이 된 땅과 소에 전력을 기울이는 모습을 통해 자기 소유가 되어야 정성을 다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점에서 개별영농의 효율성을 강조한다. 이외에도 중편소설 〈숯불은 타오른다〉(1981)에서는 마을의 술꾼으로 호가 난 정팔이가 개혁 이후 개체 사업이 가능해지자 사원진 룡선생 국수집을 맡아 성실하게 일하

27) 조영남, 『개혁과 개방』, 민음사, 2016, 75면.
28) 리원길의 작품에서는 생산대 별 집단영농을 포기하고 호 별로 땅을 분배하여 영농하는 '호별영농'을 연변 방언인 '호도거리'로 쓰고 있다. 본고에서는 작품 인용을 제외하고는 '호별영농'으로 통일한다.

여 크게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 '먹을 것 입을 것 걱정 없이 기와집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꿈이 지금 고마운 당의 혜택으로 희망만이 아니 현실로 변하여 가고 있다'[29]며 당의 정책을 예찬한다.

앞에서 보듯 리원길은 1980년대 전반기 작품들에서 개혁개방으로 집단 영농을 벗어나 호별영농이 실시되면서 농업생산성이 증가하여 농민들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에 농촌 개혁에 대해 예찬을 보내던 리원길은 1988년에 『천지』에 발표한 〈리향〉에서는 그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인다.

> 사토덕대도 이전의 사토덕대가 아니다. 이전 같으면 벌써 두엄더미들이 울멍줄멍하겠지만 요 몇 년에 점차 줄어들다가 없어지고 지금은 임직신이네와 선우로인네를 내놓고는 논밭도 없다. 박치원인 원래 얼간이 농사군이라 작답 역사가 넌덜머리 난다면서 땅만 차지하고 몇 해 콩 종자나 뿌려내치다가 매화네 집에 일군으로 갔다가 쫓겨온 뒤부터는 아예 여뀌밭을 만들어버렸다. 다른 집도 피장파장이였다. 85년 큰물에 큰 강의 물길이 돌아서는 통에 봄에 건너오는 물이 메기느침 같아서 그렇게 된 것만이 아니다. 농사군들의 마음이 갈라헤지였기 때문이다.[30]

개혁개방으로 너도나도 짠지장사, 국수장사, 개장집, 약장사, 막벌이 등으로 나서서 돈을 벌기도 하고 빚을 지기도 하지만 대다수 농민이 농사를 포기한다. 도시로 나가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들떠 '농민은 제 땅이 있어야 한다. 땅만 있으면 밥이 나오고 밥이 있으면 살기는 산다. 아니 밥이 있어야 산다'[31]는 일념으로 조상

29) 〈숯불은 타오른다〉, ≪피모라이 병졸들≫, 571면.
30) 〈리향〉, ≪피모라이 병졸들≫, 321면.
31) 〈리향〉, ≪피모라이 병졸들≫, 337면.

들이 척박한 만주 땅에서 갖은 애를 써 이룬 농토를 버리는 일이 보편화된 것이다. 더욱이 개체 사업이 허용되면서 큰돈을 번 사람도 없지 않지만 대다수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하여 빈궁한 처지에 빠져 빈부의 차이가 다시 심해지는 것이 개혁개방 이후의 현실이다.

개체 사업이 허용되자 너도나도 농사를 포기하고 사업에 뛰어든 결과 농촌이 피폐해진다. 양돈업에 뛰어들었다 실패한 아들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리던 방철네는 약값이 없어 죽음에 이르고, 아버지가 꿍쳐 놓은 돈을 훔쳐 사업에 나섰다가 경찰서 신세를 지고 나온 선우노인의 아들은 하얼빈에서 식당업으로 성공한 매화와 눈이 맞아 부자가 되어 아버지를 모시겠다고 한다. 평생을 땅에 기대어 살아왔고 장사란 성실한 사람이 할 일이 아니라 생각하고 살았던 선우노인도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땅을 정리하고 아들네와 합칠 생각을 한다. 이렇듯 농촌은 황폐화되고 빈부의 차는 점차 심해지는 개혁개방 이후의 농촌의 풍경은 사회주의 중국이 지향해 왔던 이상 사회와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창작 초기 리원길은 농촌 개혁 정책으로 농민들이 자신의 땅에서 소신껏 일하여 생산성이 증가하고 경제적인 안정을 이루게 되었다는 점에서 개혁을 찬양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보여준 그의 농촌 개혁에 관한 긍정적 시각은 〈리향〉에 이르러 회의적으로 변화하였다. 이는 당의 정책에 회의하지 않고 당이 지향한 개혁개방이 인민을 가난에서 구하는 길이라 믿었던 리원길이 개혁개방 10년 후에 바라본 농민의 삶을 통해 얻은 농촌의 현실에 대한 회의적인 인식과 미래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보여준다. 이러난 시각의 전환은 사회 전반의 개혁개방에 대한 인식이자 리원길의 삶의 현장이자 관심의 초점이던 농촌의 개혁에 대한 작가적 판단이다.

이 같은 농촌 개혁 정책에 대한 회의는 리원길이 개혁으로 생산성이 증가한 농촌 현실을 통해 정책의 정당성과 효과를 예찬하던 그

간의 시각을 벗어나 농촌 개혁 과정에서 농촌 현장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면밀히 살피는 데로 나아간다. 이에 대해서는 장을 달리하여 살피기로 한다.

4. 농촌 개혁 과정의 치밀한 형상화

리원길은 1985년 중국작가협회 연변분회 부주석 겸 전직작가로 자리를 옮겨 이후 10년간 왕성한 작품 활동을 한다. 개혁개방의 과정 속에서 변화해 가는 농촌의 현실과 농민의 삶에 지속적인 관심을 보이던 리원길은 1989년 개혁개방으로 새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는 농촌의 모습을 소설화한 〈땅의 자식들〉 3부작 중에서 1, 2부를 ≪설야≫와 ≪춘정≫[32]이라는 제명으로 발표한다. 리원길은 이 작품들에 대해 당시 농촌 개혁이 체제상의 개혁과 경제상의 부흥을 초래하여 사람들의 관념과 도덕의식과 성의식까지 변화를 일으킨 바, 관념과 의식의 변화에 치중하여 그려냄으로써 시대의 거시적 변화를 표현하려고 하였다[33]고 말한 바 있다.

오상순은 〈설야〉를 논하면서 리원길의 고백처럼 이 작품이 개혁개방 시기의 조선족 농민들의 삶의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 재래의 소설이 재중조선인의 력사를 '중국공산당의 령도 아래 조중 인민들이 어깨 겯고 생활하고 싸워온 투쟁의 역사'로

32) 이하 작품 전체를 지칭할 때는 〈땅의 자식들〉로, 각각을 지칭할 때는 〈설야〉, 〈춘정〉으로 한다. 작품 인용은 〈설야〉는 리원길, ≪설야≫(중국조선족문학대계 8, 연변인민출판사, 2011.)에서 〈춘정〉은 리원길, ≪춘정≫(연변인민출판사, 1992.)에서 하고 '〈작품명〉, 면수'로 밝힌다.

33) 강옥, 앞의 글, 398면.

> 밝혀 민족자존심을 세운 것이라면 <설야>는 무수한 생활 사건들로 조선족문화의 정체성을 시도하였는 바 소설은 '우리 종족의 모습을 지키고 있는 조선족 농민들의 생활'을 세속화하여 우리 조선족의 문화적인 내용에 깊이 파고들었다.[34]

이와 같이 많은 연구자들은 〈땅의 자식들〉은 정치적 주제를 다루어 소수 민족 문학으로서 조선족 문학을 승인받기 위해 노력해온 이전의 조선족 장편소설과는 달리 조선족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다루었다는 점에서 장편소설의 세속화라는 관점에서 그 의의를 부여해 왔다.[35] 그러나 〈땅의 자식들〉은 문혁 이후 변화하는 농촌 개혁 정책에 따라 집단영농에서 호별영농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이 자신의 처지에 따라 갖게 되는 내밀한 시각 차이와 그것들이 부딪히는 양상을 매우 치밀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적이다.

중국공산당 11기 3중전회에서 개혁개방을 당의 정책으로 결정하였지만 그 구체적 방안에 대해서는 갈등이 적지 않았다. 우선적으로 개혁을 실시하기로 한 농촌에 대해서도 집단영농을 유지할 것인가 여부에 대해 보수파와 개혁파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았다. 더구나 집단영농을 포기한다 해도 생산대원을 조별로 나누어 생산은 생산조가 담당하고 분배는 생산대에서 통일적으로 하는 조별도급, 생산은 개별 농가가 담당하되 분배는 생산대가 통일적으로 하는 호별도급, 생산조 단위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조별영농, 농가 단위로 생산하고 분배하는 호별영농 등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여 그 방향을 일률적으로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결과 중앙에서는 지역마다 마을마다 현실이 같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영농 방식을 결

34) 오상순, 「'선비'와 '농민작가' -리원길론」, 『도라지』 2004.5, 113면.
35) 오상순, 리광일, 이해영, 조일남, 장춘식 등 〈땅의 자식들〉에 대해 논한 대부분의 논자들이 이 작품이 농촌 개혁의 문제와 함께 남녀의 성 의식 변화, 경제에 대한 관념의 변화, 자유로운 연애 등 세속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음에 주목한 바 있다.

정하도록 해 농촌 개혁은 상당한 혼란을 경험하였다.[36]

농업 집단화 추진 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생산성 저하로 농민의 삶이 기아선상에 이르러 어쩔 수 없이 집단영농을 포기하는 상황에서 상정할 수 있는 대안으로는 조별도급에서 호별영농에 이르는 다양한 방식이 존재했다. 농민들은 어떤 영농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를 두고 논의를 거듭하면서 각각의 영농 방법에 예견되는 문제점들로 인해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국가 이념인 사회주의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호별영농을 선택하는 지역이 등장한다. 이는 1978년 12월 안후이성(安徽省) 펑양현(鳳陽縣) 리위안공사(梨園公社) 샤오강(小崗) 생산대원들이 새해 영농을 조별도급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조원들 사이의 의견 불일치로 조별영농이 불가능해지자, 최종 마을 회의를 열어 긴 논의 끝에 호별영농을 대안으로 의견을 모아, 조별도급을 권장하는 상급의 지시를 어기고 호별영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지키기 위하여 문서[37]를 작성한 일에서 확인된다.[38]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농촌의 개혁에 대한 당의 결정은 대부분의 농민들이 원하는 호별영농 쪽

36) 개혁개방 초기 중국 농촌의 개혁 과정에 대해서는 조영남, 앞의 책, 99~159면 참조.

37) 샤오강 생산대의 생산대장과 대원 20명이 문서에 서명날인한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는 호별영농을 하기로 하고 각 호의 호주가 서명날인 한다. 만약 다음에 할 수 있다면 각 호는 자신들이 한 해 동안 국가에 납부해야 할 공량을 완성할 것을 보증하고, 더 이상 국가에 곡식과 돈이 필요하다고 손을 내밀지 말아야 한다. 만약 잘못 되어 우리 간부들이 감옥에 가 목을 잘려도 기꺼이 감수하고, 대원 모두는 우리의 아이들을 18세가 될 때까지 양육할 것을 보증한다.(我們分田到戶, 每戶戶主簽字盖章. 如此后能干, 每戶保証完成每戶全年上交(繳)的公粮, 不在(再)向國家伸手要錢要粮. 如不成, 我們干部作(坐)牢殺頭也干(甘)心, 大家社員也保証把我們的孩子養活到18歲)'
http://www.chnmuseum.cn/Default.aspx?TabId=212&AntiqueLanguageID=7574
이 문서는 〈춘정〉, 135면에 수록된 '보증서'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38) 샤오강 생산대의 호별영농 결정 과정은 조영남, 앞의 책, 122~124면 참조.

으로 기울어 1982년 1월 당의 '중앙 1호' 문건에서 농촌 개혁은 지역의 현실을 고려해 조별도급이든 호별영농이든 자유롭게 선택하라는 결정을 내려 '호별영농'을 합법화하였다. 그리고 1983년 1월에 다시 '중앙 1호' 문건으로 동일한 정책이 하달되고, 그 해 여름이 되면 전국적으로 98%에 가까운 생산대에서 호별영농을 실시[39]하였다.

리원길의 〈땅의 자식들〉은 1982년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한다.[40] 이미 많은 지역에서 집단영농을 포기하고 호별영농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긴내천 농민들은 집단영농을 포기할 것인가, 또 포기한다면 어떤 방식을 선택할 것인가로 심각한 갈등을 겪는다. 〈땅의 자식들〉에서 긴내천 생산대가 집단영농을 포기하고 호별영농으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순탄할 수 없다. 당에서 일정한 개혁의 방향을 내려 보내 지부에서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대원들끼리 자체적으로 개혁의 방향을 결정하라는 상황에서 농촌 사회가 혼란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다.[41] 긴내천 사람들은 정치적 신념, 생산대에서의 위상, 땅에 대한 욕심, 미래에 대한 욕망, 노동력이 부족한 가정 상황 등 각자 자신의 처지에 따라 집단영농을 유지하는 방법에서부터 조별영농, 호별영농에 이르기까지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하고 자신의 뜻대로 최종 결정되도록 애를 쓴다.

각자의 신념이나 이익이 연계된 이 과정은 지루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다. 집단영농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에 바탕한 전 지부서기 장성식 노인과 가족 구성 상 호별영농으로

39) 위의 책, 146~148면.

40) 농촌 개혁 방식은 지역 현실을 고려해 선택하라는 당의 입장이 하달되었으나 농촌 현장에서는 정책의 이해에 혼선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집단영농이 잘 이행되고 있던 동북지방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농촌 개혁이 비교적 늦게 진행되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의 선택은 매우 적절하다.

41) 이는 당 내에서 농촌 개혁의 방향을 두고 몇 년 간의 논의를 거치고 난 뒤 지역의 실정에 맞도록 생산대 별로 결정하라는 결론을 내린 것과 유사한 상황이다.

전환하면 생존에 문제가 생길 박애실 노친과 교사 김성종 등과 게으르고 가족이 많아 집단영농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전이복 등이 있다. 그리고 호별영농을 주장하는 편에는 퇴역군인으로 당의 이념을 믿지만 현실 변화를 고려하는 황보석과 땅 욕심이 많은 실농군 황보상근 노인 그리고 집단영농이 실시되기 전에 장사로 돈을 벌어본 경험이 있는 전치복, 최홍성 등이 있다. 그리고 긴내천의 미래를 결정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지부서기 지탁준은 당의 이념에 대한 믿음과 자신이 집체 기간에 해 온 성과 등으로 보아 집단영농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긴내천 사람들의 뜻과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호별영농으로의 전환도 고려하고 있다.

이에서 보듯이 집단영농을 유지할 것인가 호별영농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의견은 사회주의 같은 이념이나 공동체의 번영 같은 대의보다는 개인의 이익에 우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긴내천 사람들은 더욱 열정적으로 마을회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마을의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다.[42] 바로 이 점에서 〈땅의 자식들〉이 문혁 이후 중국 농촌에 몰아닥친 개혁에 대한 농민들의 대응 방식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 (A) 만일 호도거리 나서 땅 나누면 우리 긴내천은 한 사람에 두 무는 돌겠지. 룡내천은 땅 많으니 두 무 반은 돌게고, 그러면 한 무에 벼로 천이삼백 근 잡고… 천이삼백 근만 왜 나겠나? 호도거리하면 모두들 손톱발톱 닳아빠지게 일할텐데 이만 근은 몰라도 천팔백 근은 나겠지. 그러면 한 해에 사천오백 근, 10년이면 사만오천 근…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누가 아노? 20년이면 구만 근… 이게 벼가 얼마고? 쌀 찧어 야미로 팔면

42) 장춘식은 이 작품의 주된 갈등은 '보수와 진보의 힘겨루기'와 '기득권층과 비기득권층 간의 갈등'이라 지적한 바 있다.(장춘식, 앞의 글 120~121면) 그러나 긴내천에서의 갈등이 보수와 진보, 기득권과 비기득권의 갈등으로 보기 보다는 각자 자신들의 이익에 대한 기대와 관련된다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

돈이 얼마고? 야미쌀 한 근에 40전, 지금 홍가툰 탄광에 실어가면 45전이라던가. 그러면… 그 돈은 황보상근 령감의 서투를 주먹구구로는 인차 계산해 낼 수 없이 막대한 돈으로 생각되였다. 그러니까 조 도술중 놈이 사돈집에다 돈 천 원까지 메따치며 란가난 집의 처녀까지 잡아온 거야![43]

(B) 인민공사 농사일이란 황보상근 령감의 말마따나 '논두렁에 앉아서 꼬니를 두어도 일판만 나가면 공수는 주는 법이요 논물이 말라 벼 모가 타도 상관 말고 대장이 시키는 일만 굽석거리며 하면 돈을 버는 법이다'. 그러니 아무리 제구실 못하는 아들일지언정 떡판 같은 덩치가 있으니 인민공사 농사에선 어쨌든 한 몫 버는 상일군이였다. 그런데다가 박애실 또한 큰 병이 없이 생산대 일에 그냥 따라다닐 수가 있어 령감이 없어도 그동안 이럭저럭 빚 안지고 먹고 살아왔다. 그저 령감이 없이 밤에 잠자리가 지랄같이 좀 설렁해져서 그렇지……

그런데 호도거리 한단다.

호도거리 하면 지랄 같이, 우리 집 같은 건 어떻게 산단 말인가?[44]

위의 두 인용에서 (A)는 호별영농을 주장하는 황보상근 노인의, (B)는 집단영농을 주장하는 박애실 노친의 생각이다. 땅 욕심이 많고 농사일에는 자신이 있는 황보상근 노인은 누구든 자기 땅을 분배받는다면 더욱더 농사일에 힘을 써서 소득을 크게 늘이고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 경제적으로 윤택해질 것인데 왜 집단영농을 지속하려는지 불만이 많다. 국가의 정책으로 집단영농을 강요하던 시기에야 어쩔 수 없이 게으르거나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여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이제 자유롭게 영농 방식을 결정하라는데 무엇 때문에 집단영농을 유지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43) 〈설야〉, 51면.
44) 〈춘정〉, 26면.

것이다. 그러나 몇 십년간 당의 정책을 비판하다 곤욕을 치르는 시간을 지내온 황보 노인은 남들 앞에서 자신의 생각을 결코 입 밖에 내놓지 아니한다.

박애실 노친은 남편은 죽고 정신지체로 아무 일도 제대로 못하는 자식뿐인 인물이다. 생산대 차원에서 집단영농을 하던 시기에는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도 각자 할 수 있는 일을 배정받아 어슬렁거리며 시간만 때워도 일정한 공수를 받기 때문에 사는 데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호별영농이 실시되어 농지를 분배받는다면 누가 그 땅에 농사를 지을 것인지가 막막해진다. 호별영농으로 변해도 같은 마을 사람들끼리인데 노동력이 없어서 농사를 짓지 못하는 가정을 그냥 내버려두겠느냐고 하지만 박 노친은 그건 호별영농이 실시되기 전에 그리로 가려는 사람들이 뱉는 말일 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녀는 장성식 노인을 찾아가 마을회의에서 집단영농이 포기한다면 자신 같은 노동 취약 가구들만 모여 조별영농을 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한다.

긴내천 사람들의 의견이 갈라진 가운데 지부서기인 지탁준은 긴내천 대장으로 활동하면서 가난한 마을을 현의 모범이 되는 생산대로 키워낸 데 대해 커다란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그간의 경험에 비추어 집단영농을 통해 마을 사람들이 다함께 경제적 안정을 누릴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호별영농을 원하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켜 집단영농을 지속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한다. 그는 이러한 자신감으로 군에 다녀와 세상을 이해하고 또 같은 당원으로 마을의 청년대장을 맡고 있는 황보석과 긴내천의 미래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던 중 자신의 신념이 흔들릴 만한 충고를 듣게 된다.

> “지서기가 긴내천을 위해 여태두룩 고생한 걸 우리 다 알아요. 전 긴내천 마을 사람들 모르는 사람 없지요. 긴내천 가로

이사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하여 놓은 일을 모두들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부터 가을까지 일 년 내내 제때제때 회의를 하고 지시를 하고 감독을 하고 애를 태웠기 때문에 농사가 이만큼 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중략) 그러나 보시오, 지서기. 이런 일들을 하느리고 해마다 얼마나 죽을 고생을 합니까? 지서기가 담을 한 동이 씩 흘려야 밑에서 땀을 한 방을 겨우 흘리는 형편이니 그렇지요. 밑에 사원들과 간부들이 지서기 말대로 하는 사람이 얼마 있습니까? (중략) 그러니 지서기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긴내천이 빨리 변하기 어렵단 말입니다. 긴내천이 빨리 변할려면 방법이 한 가지입니다. 호도거리 해 보시오. 생산열정 단번에 올라가지요. 지서기도 밤낮 이렇게 작은 일 큰일에 골머리 앓을 것 없고……"[45]

황보석은 같은 당원이면서도 매우 이지적인 판단을 통해 현실적인 충고를 한다. 지서기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전 마을이 새 집을 지어 이사를 하여 마을과 농토가 멀었던 문제를 극복하고 다른 동네에 비해 생산성을 높여 선도 마을로 이끌었다. 그러나 황보석은 여러 마을을 둘러보면서 다른 농촌에서는 집단영농을 포기하고 호별영농으로 나아가고 또 능력이 되는 대로 개체 사업을 겸하면서 자발적 노력으로 경제적 부를 창출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따라서 그는 지서기가 혼자 노력하고 마을사람들이 수동적으로 이끌려오는 집단영농보다 각자가 자신의 책임 아래 농사를 짓는 호별영농이 좀 더 빠른 농촌 개혁의 길임을 설파한다. 집단영농이 생산력의 한계를 보았을 때 그것이 제도의 모순 탓인지 농사꾼의 부실한 노동 탓인지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자유로운 경제 정책으로 발생하는 빈부의 차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주의를 선택한 과거를 잘 알고 있고, 국가가 지향하는 이념을 잘 알고 있는 당원들로서는 선택의 어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46] 마을 사람들의 미래를

45) 〈설야〉, 448면.

책임지고 있는 지부서기로서는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간단하지 않은 일이다. 황보석의 의견은 선택의 갈등 속에 머뭇거리는 지서기가 방향을 결정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된다.

지탁준은 기왕의 집단영농에 대한 확고한 신념에서 점차 호별영농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된다. 집단영농과 호별영농 즉 집체 경제와 개체 경제 사이에서 고민을 지속하던 지서기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에는 현3급간부회의 마지막날 박장길 부현장과 시장거리를 구경하며 나눈 대화이다.

> "탁준이, 내 말이 어때? 그래 요사이 새로운 궁리들을 해 보나?"
> "해 보긴 해봅니다만…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도 일이 년 전부터 손을 썼으면 좋았을 걸 그냥 머리가 타이지 않아서…"
> "그건 다 내 탓이야. 내 탓이 많지. 내 사상부터 해방이 못 되였던거니까. 이번 회의에서도 말했다싶이 나도 겁이 많았단 말이야… 그렇지 않게 됐나 보라구. 이 몇십 년 정치풍파를 얼마나 겪었나? (후략)"[47]

지탁준은 현3급간부회의에 참가하여 각 지부서기들의 마을 사례 보고도 듣고 또 상급의 방침을 듣기는 하지만 긴내천의 현실을 생각하여 호별영농으로 나아가는 데 대한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마을의 분위기는 호별영농으로 흘러가는 듯하지만 집단영농을 요구하는 전 지부서기 장성식 노인의 주장과 마을에서 노동력이 부족한 가정의 상황을 생각하면 그 방향으로 몰고 가는 데 대해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해준 인물은 평소에 진실한 공산당 기

46) 중국공산당이 농촌의 개혁을 결정하고도 4~5년 동안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이러한 당내의 갈등의 결과일 것이다. 〈설야〉가 보여주는 마을 당 간부들이 호별영농 두고 일으키는 갈등은 당시 중국공산당 내의 갈등과 상동성을 지닌다.

47) 〈춘정〉, 342면.

층간부로 존경해 마지않던 박장길 부현장이다. 그는 회의에 가득찬 지탁준을 데리고 집체 경제 기간 동안 쇠락했다가 개혁 이후 번화해지기 시작한 장터로 데리고 나가 장거리를 구경하고, 국수를 함께 먹으면서 농촌 개혁에 대해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는지 물어본다. 이에 지탁준이 이미 당의 방침이 변화하였다면 조금 일찍 호별영농으로 가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변하자 지탁준을 위로해 준다. 박장길 부현장의 말은 기층 간부들의 사상이 깨이지 못한 것은 지난 시절의 강제적인 정책의 시행과 정치풍파 때문이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 그것은 이제 정책의 방향이 정확해져서 시장 경제로 나아간다는 것이 명백해진 만큼 기층 간부가 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는 분명해졌다는 지적이다.

박장길 부현장의 말을 듣고 돌아온 생산대 회의에서 호별영농으로 방향을 결정하는데 앞장서지는 않으나 옹호하는 자세를 취한다. 물론 장성식 노인의 이념적인 공격이 없지 않았고 집단영농을 주장하는 소수가 조별영농을 하게 해달라는 주장도 없지 않았지만 회의는 전체가 호별영농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농지를 배분하고 생산대 공동명의의 농기구와 소 등 모든 재산을 개인에게 배분한다. 결국 당의 방침대로 더 많은 마을 구성원들이 원하는 호별영농으로 결정된 것이다.

〈땅의 자식들〉은 긴 시간 동안의 갈등을 통하여 어렵게 농촌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치밀하게 그려내고 있다. 농촌 개혁의 방향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견해와 그 속에 감추어진 그들의 속마음, 그들이 자신의 의견대로 이끌기 위해 벌이는 노력은 농촌 개혁의 과정의 내밀한 풍경을 사실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리원길의 이전 소설이 보여주던 호별영농으로 호전된 농촌 경제와 호별영농 이후에도 마을 사람들이 상호 협력하는 인정이 가득한 농민의 모습을 예찬하는 데에서 벗어나 농촌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어려움과 그

결과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라는 농촌 개혁에 대한 객관적 시각을 드러낸 것이라 하겠다. 그러나 〈땅의 자식들〉 3부작이 완결되지 못하고 2부 〈춘정〉에서 긴내천에 호별영농이 시행되는 데서 끝나 개혁 이후 농촌의 현실을 그리지 못하고 말아 리원길의 농촌 개혁에 대한 전체적인 인식과 미래에 대한 전망을 총체적으로 볼 수 없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5. 시대적 주제의 소설화가 갖는 한계

문혁 이후 개혁개방이 시작한 시기에 등단한 리원길은 당시 문단의 주류였던 문혁의 상처와 농촌 개혁의 현실을 소설화한 대표적인 조선족 작가로 자리매김하였다. 즉 리원길은 극좌적 이념이 지배하던 문혁이 끝나고 개혁개방으로 나아가는 시대적 주제를 다루는 소설을 창작한 것이다. 그러나 개혁개방 초기 중국 사회가 지향하던 농촌 개혁과 관련한 시대적 주제를 소설화한 리원길은 1995년 중앙민족대학 교수로 근무하면서 점차 창작으로부터 멀어진다. 북경 이주 이후 리원길은 역사소설 몇 편과 중편소설 〈직녀야, 니나 내려다고〉를 발표하여 문단의 주목을 받기도 하였으나 이후 소설 창작을 중단하고 만다.

리원길의 창작 중단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은 조선족 문단의 큰 손실이라 평가하고, 그 원인을 번잡한 대학교수 생활에 기인한 것이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설명은 리원길이 북경으로 이주한 후 수십 권의 중국 고전소설과 무협소설 등을 번역하여 한국에서 출판하였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오히려 리원길이 북경으로 이주한 후 대도시 생활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한중수교 이후 한국사회에 불어 닥친 중국 문화에 대한 관심에 부응해 중국 출판물을

번역하는 작업에 치중함으로써 소설 창작에 몰입할 시간적 여유를 잃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타당하다. 그러나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작된 리원길의 번역 작업은 한중간의 문화 중개자로서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리원길이 소설 창작을 중단한 원인을 문학 외적인 현실에서 찾기보다 그의 소설적 경향이 1995년 이후 급변하는 중국 사회를 소설화하는데 한계를 보인 점에서 찾는 것이 설득력이 있다. 그는 40세가 넘어 연변으로 이사할 때까지 대학을 다니던 짧은 시간을 제외하고는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농민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소설화하는데 치중하였다. 그는 자신이 잘 알고 있는 농촌 현실을 제재로 시대적 주제이던 농촌 개혁을 소설로 형상화한 것이다. 그러나 덩샤오핑의 남순강화 이후 중국 사회의 관심은 농업에서 상공업으로, 농촌에서 도시로 중심이 이동하고, 또 한중수교로 조선족 소설의 외연이 크게 확장되었다. 그러나 50세가 넘어 북경으로 거처를 옮긴 리원길로서는 이 같은 시대적 변화에 발맞추어 소설의 제재를 농촌에서 도시로 전환하지 못하고 만다.

리원길은 통일된 이념으로 창작하는 공명(公名)의 시대에는 왕성하게 창작하였으나, 각 작품이 서로 다른 주제를 다루는 무명(無名)의 시대로 변하면서 창작을 포기한다.[48] 리원길이 북경으로 이주한 1995년경부터 덩샤오핑의 남순강화의 결과로 개혁개방이 전면화하여 농촌 문제에서 도시로 또 산업화의 문제로 변화하고, 문학도 점차 사회의 제반 문제에 대한 작가의 독특한 대응 방식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등단 이후 자신에게 익숙한 농촌을 배경으로 농촌 개혁이라는 일정한 사회적 주제를 통일된 시각으로 작품화해 오던 리원길로서는 사회의 변화를 담보한 새로운 창작 방법을 요구하는 문단의 변화에 쉽게 적응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개혁개방

48) '공명'과 '무명'에 대해서는 각주 12) 참조.

이후 급격히 변화하는 북경으로 이주한 리원길이 대도시 북경에서의 삶을 통해 자신의 새로운 창작의 동력을 찾지 못하고 역사소설과 농촌을 다룬 소설을 창작한 사실에서 잘 드러난다. 시대의 변화를 담보할 독자적인 창작 방법을 구안하지 못하면서 리원길은 더 이상의 소설 창작을 포기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바, 이는 한편으로 그의 작가적 성실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본고는 리원길의 소설 전체를 농촌 개혁의 형상화라는 주제와 관련지어 살핀 결과 그의 소설 세계의 극히 일부만을 바라본 한계를 지닌다. 예컨대 그의 소설 중에서 성실한 당원을 자살하게 만드는 부패한 중간 간부를 통해 현실에 대한 강한 비판의식을 보여준 〈한 당원의 자살〉(1985)과 같은 작품이 논문의 주제와 거리가 있어 논의에서 제외되고, 여러 논자들이 언급한 〈땅의 자식들〉에 나타난 세대 갈등이나 성 의식의 변화와 같은 다양한 주제들을 전혀 다루지 못했다. 본고의 논의에서 제외된 리원길의 소설에 나타난 주제들에 대해서는 또 다른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리원길, <다시 찾은 청춘>, 남주길 외, ≪사랑에 대한 이야기≫, 연변인민출판사, 1980, 64～101면.

리원길, ≪백성의 마음≫, 연변인민출판사, 1984.

리원길, ≪설야≫, 연변인민출판사, 1989.

리원길, ≪설야≫, 중국조선족문학대계(해방후편) 8, 연변인민출판사, 2011.

리원길, ≪춘정≫, 연변인민출판사, 1992.

리원길, ≪피모라이 병졸들≫, 민족출판사, 1995.

리원길, ≪땅의 자식들 1~4≫, 뜻이 있는 길, 1994.

리원길의 메일, 2017.5.25.

김호웅 외, 『중국조선족문학통사 하』, 연변인민출판사, 2012.

리원길, 「문학어의 정확성을 보장할데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1991.1, 36～37면.

리원길, 「문학의 십자가를 메고」, 『도라지』 2004.5, 127～129면.

오상순, 「조선족 여성작가 허련순의 소설과 당대 남성작가들의 소설에 나타난 '뿌리 찾기 의식' 연구」, 『여성문학연구』 12, 2004.12, 375～409면.

오상순, 『개혁개방과 중국조선족 소설문학』, 월인, 2001.

오상순, 「'선비'와 '농민작가' - 리원길론」, 『도라지』 2004.5, 103～116면.

오상순, 「'선비'와 '농민작가' - 이원길론」, 『오늘의 문예비평』 2007.2, 160～184면.

이광일, 『해방 후 조선족 소설문학 연구』, 경인문화사, 2003.

이해영, 『중국조선족 사회사와 장편소설』, 역락, 2006.

장춘식, 「리원길의 장편소설 <땅의 자식들> 시론>, 『도라지』 2004.5, 117～126면.

조영남, 『개혁과 개방』, 민음사, 2016.

차성연, 「개혁개방기 중국조선족 소설에 나타난 '농민' 정체성」, 『현대소설연구』 50, 2012.8, 537～566면.

천쓰허(陳思和), 노정은 · 박난영 역, 『중국당대문학사』, 문학동네, 2008.

최병우, 『조선족 소설의 틀과 결』, 국학자료원, 2012.

최병우, 「조선족 소설과 문화대혁명의 기억」, 『현대소설연구』 54, 2013.12, 491~537면.

董永祥 · 杨艳秋, 「北大荒文艺产生与发展的历史性考察」, 『牧丹江师范学院学报』 2013.6, 42~45면.

滕紫欣 · 张冬, 「北大荒文学及历史意义研究」, 『牧丹江大学学报』 23~11, 2014. 11, 95~97면.

中国国家博物馆 홈페이지 安徽省 凤阳县 梨园公社 小岗生产队 包干到户 合同书 http://www.chnmuseum.cn/Default.aspx?TabId=212&AntiqueLanguageID=7574

<Abstract>

Reform and Opening Appearing in Li Won-gil's Novel

Choi, Byeong-Woo

This study examines rural reforms in the reform and opening era, which is a general theme of Li Won-gil's novel, in relation to his life and the situation of the times. Li Won-gil entered upon his literary career at the beginning of the reform and opening after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reated the wounds of the Cultural Revolution, which was the mainstream of the literary world at the time, and made the reality of rural reform a fiction. Li Won-gil's works tend to be the result of the spirit of an era in which he began to create novels in a period of rapid change from class struggle to reform and opening. Li Won-gil, who became a representing author of the Joseonjok literary world by fictionizing the subject related to the rural reform that the China society in the early period of reform and opening was aiming at, gradually moved away from writing from the mid-1990s when the reform and opening began.

Li Won-gil's going away from writing novels is related to receiving notice of the literary world in a short period of time as he grew and emerged into the literary world at a time when a unified ideology dominated society, and he unfolded themes of the times that the nation aimed at into his novels. Li Won-gil, a representative writer of the

generation who made certain themes of the times into a unified view, would have difficulty adapting easily to the change of literature, which calls for new creative methods with a unique perception of reality. In this perspective, Li Won-gil could not devise his own creative method to secure a new era, so it can be evaluated that he made a difficult decision that he would no longer write novels.

Key words: Joseonjok novel, reform and opening, rural reform, group farming, separate farming, themes of the times

투 고 일 : 2017년 5월 23일 심 사 일 : 2017년 5월 25일-6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6월 10일 수정마감일 : 2017년 6월 19일